

세월호 희생 영가 위해 조계종, 팽목항서 수륙재

불교계가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와 304명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한 법석을 마련한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1월 29일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 '세월호 희생자 영가를 위한 수륙재'를 봉행한다. 이날 수륙재는 조계종진도남구호보사단과 진도불교사암연합회, 백양사·화엄사·송광사·대흥사·금산사·선운사 등 조계종 호남 6개 교구본사의 공동주관으로 열린다.

이 자리는 4월16일 세월호 사건 발생 직후 지금까지 진도 팽목항에서 희생자 가족들을 지원해온 조계종진도남구호보사단의 활동보고를 시작으로 추모법요식과 수륙재 봉행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김경윤 시인, 소리꾼 이병재, 박필수, 무용가 김대린 등의 추모공연과 희생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304개의 풍등을 띄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종교문화재 예산 바람직한 기준은

종자연, 11월 29일 토론회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박광서, 이하 종자연)이 종교문화재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 논란을 종식시키고자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앞서 종자연이 진행했던 관련 예산 지원기준과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도 발표된다.

11월 29일 오후 2시 만해NGO교육센터 2층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황평우 문화재전문위원이 '정부의 종교문화재 예산지원의 타당성과 실태연구' 발표를 맡는다. 황 위원은 종자연과 함께 종교계를 비롯, 일반국민들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수용가능한 정부의 종교문화재 예산지원 기준과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토론회는 유광석(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연구원), 김진호(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박문수(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교수), 김영국(연경사회문화정책연구네트워크 상임연구원), 이창익(한림대학교 생사학연구소 HK 연구교수), 박광수(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소장),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종자연은 "종교문화재는 특정종교에 속한 종교적 시설물로 이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에 대한 실태와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韓中日 불교, DMZ서 한반도 평화 기원

(비무장지대)

17차 한중일불교교류대회 일한... 19일 철책선 평화행진

"전쟁은 핵불이며, 반불교적이고, 잔인한 폭력이라는 인식을 같이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선언합니다. 이곳 비무장 지대에 평화를 향한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커다란 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중일 불자들이 분단의 상징인 휴전선에서 평화를 위해 마음을 모았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는 11월 19일 파주 임진각에서 평화행진을 진행했다.

제17차 한중일불교교류대회 한국대회에 참석한 한중일 3국의 불교도 300여명은 "평화로운 한반도, 조화로운 세계"의 대회 주제를 쓴 현수막을 뒤로 한반도 기를 흔들며 철책선을 따라 걸으며 남북 분단 극복 및 평화 정착을 기원했다. 임진각에서 통일대교까지 1km의 민간인 통제구역은 3국 불자들의 행진하는 동안 평화의 기운이 감돌았다.

종단협 회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중국불교협회 명성 스님,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

의회 이사장 타케카쿠 스님 등 대표 스님들은 행진에 앞서 마음을 모아 평화의 종을 타종하기도 했다.

행진에 이어 한중일 불자들은 개성공단이 내려 보이는 도라산 전망대로 자리를 옮겨 '한반도와 세계평화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중국단장을 맡은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명성 스님은 기원문을 통해 "사바세계는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빈발한 상황"이라며 "삼국 불제자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세계평화와 인민의 행복을 기원하며, 단결 협력해 유대가 영원히 빛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 이사장 타케카쿠 스님은 "제17차 한국대회를 맞아 삼국불교도는 함께 마음을 모아 진정한 평화의 실현을 발원한다"며 "세계평화, 중생안온, 환경보존 및 불법홍등을 지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제17차 한중일불교교류대회 한국대회에서 채택된 공동선언문이 발표됐다.



사진설명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1월 19일 파주 임진각에서 평화행진을 진행했다. 3국 스님들이 한반도기를 흔들며 임진각부터 통일대교까지 1km구간을 행진하고 있다.

임진각서 통일대교까지 걸어
행진 동안 평화의 기운 '물씬'
'세계평화기원법회' 함께 봉행
"전쟁, 反불교적" 공동선언도

종단협 회장 자승 스님을 필두로 한중일 대표단은 선언문 낭독을 통해 "이곳 비무장 지대에 평화를 향한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커다란 전기를 만들고 있다"며 "바로 우리 앞에 보이는 개성공단은 서로 화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성공적 사업의 사례로 함께 하나, 둘 만들어 간다면, 마침내 이곳에도 평화가 정착되고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는 통일의 그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쟁은 핵불이며, 반불교적이고,

잔인한 폭력이라는 인식을 같이하며 △화합과 평화로운 세계 건설 △평화분야 협력 사업 전개 △불국정도 위한 연대와 협력 강화에 뜻을 모은다"고 밝혔다.

도라산 전망대에서 스님들은 분단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남북화해협력에 힘을 모으겠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일한불교문화교류협 이사장 니시오카 료코 스님은 "일본과 한국은 함께할 운명으로 남한과 북한이 화합하는 것이 동북아 평화의 지름길"이라며 "천태종의 영봉사 복원에 일본 천태종이 힘을 보탠 것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장 일면 스님도 "한국의 불자들이 이땅에 진정한 평화를 위해 보다 마음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17차 한중일불교교류대회는 11월 18일 홍은동 힐튼호텔에서 단장회동과 환영만찬이 진행됐으며, 19일 평화행진과 평화기원법회에 앞서 호텔에서 학술간담회와 차기대회 일본 개최에 관한 협의가 체결됐다. 법회에 이어 대표단은 호텔에서 자리를 옮겨 축하만찬을 가진 후 20일 폐회 후 개별 출국했다. **파주= 노덕현 기자**



안양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은 11월 16일 제26회 한마음선원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5000여 명의 신도들이 부처님 뜻에 따라 바르게 살 것을 서원했다.

"부처님 법대로 살 것을 서원합니다"

한마음선원 5000여 신도 동시 수계법회 봉행

"오늘 오계를 받아 지닌 이 인연공덕으로 스승님의 법의 길을 따르며 저의 한사람 한사람 각자에게 적합하게 쥐어주시는 관법수행의 방편으로 법의 수레고삐 꼭 잡고 흔들림없이 정진의 길 걸어가기로 다짐하오나...물러섬 없는 수행자로 나아가게 하 여지이다!"

안양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은 11월 16일

제26회 한마음선원 수계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5000여 명의 신도들이 부처님 뜻에 따라 바르게 살 것을 서원했다.

수계법회에는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기부터 휠체어를 타고 가족들과 함께 온 노모살까지 다양한 신도들이 참석했다. 수계자들은 대행 스님의 생전 법문을 등

영상으로 시청하며 내면의 자성을 발휘 것을 다짐했다. 법문 시청 후, 수계자들은 삼보를 청하는 청송을 통해 불보살님들의 자비광명으로 수계를 증명할 것을 청하고 주지 혜원 스님을 계사로 모셨다.

혜원 스님이 오계를 살하자 신도들은 모두 함께 지계의 다짐을 하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연비와 수계의식에 임했다. 수계를 받은 이정일 씨는 "부처님 제자로 살기 위해 수계에 동참하게 됐다. 오계와 함께 대행 스님이 강조하신 마음공부법을 실제 생활에서 잘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너는 기자**

"통일 이끄는 지도자 선출 중요해"

평화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각계 전문가 토론회 진행
10주년기념 후원의 밤도



평화재단이사장 법륜 스님이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통일을 위해 우리는 제도적 개선과 국민적 각성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통일을 원하고 통일이 우리에게 큰 이익을 가져온다면, 또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삶의 자존감을 가져온다면, 지도자를 뽑을 때 통일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를 잘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한반도 평화정책과 비전을 이끌어온 평화재단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11월 18일 프레스센터 20층에서 '통일 패러다임'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주제 발표로는 △조민 박사(통일연구원 연구본부장)가 '한국 사회의 통일 준비'를 △윤여상 박사(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가 '북한의 통일 준비'를 △이근 교수(서울대 국제대학원)가 '한반도의 통일과 동아시아의 평화' 등을 각각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정낙근 선임연구원(여의도연구원), 성경경 교수(한림대 사회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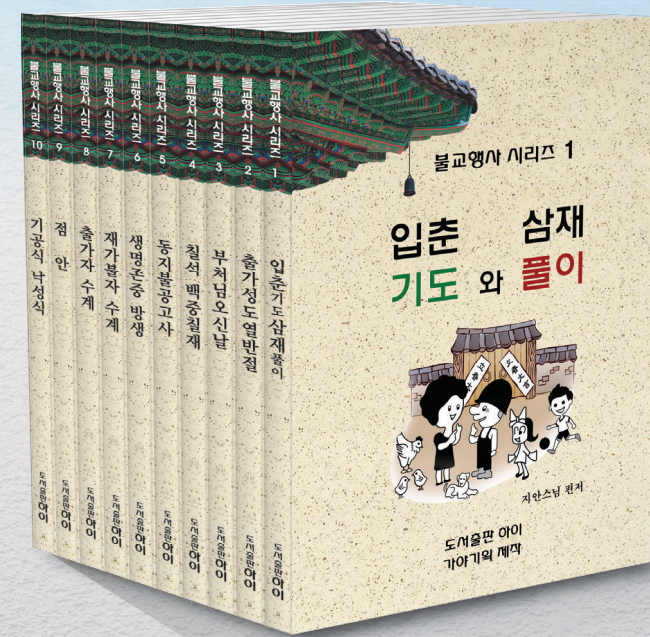
김영수 교수(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이영훈 수석연구원(SK경제경영연구소), 조한범 선임연구원(통일연구원), 이희욱 교수(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등이 참여했다.

또한 저녁에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로 자리를 옮겨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후원의 밤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내빈과 사회인사, 평화연구원, 평화재단 후원회 회원, 청년활동가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도법 스님(조계종 자성과 색신결사추진 본부장), 백도웅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고문, 최일도 목사(다일공동체 대표) 등 종교계 인사는 물론 새누리당 이재오·정병국·주호영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김한길·원혜영·문재인·안철수 의원 등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다. **정혜숙 기자**

불교행사 지침서

알기 쉽고!
간편하고!
편리하게!

지안스님이 엮어가는
불교행사 정진기도
시리즈



입춘, 출가성도열반전, 부처님 오신날, 칠성불공, 백중칠재, 동지불공 고사, 방생, 재가불자 수계, 출가자 수계, 점안, 가공식 낙성식 기도와 예식 행사, 공양차림은 어떻게 지내고 지켜야 되는지 전10권으로 시원하게 알려준 **지안 스님의 지침서**

입춘은 탄생과 생명력을 상징, 불교신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중생구제 기도로 절에가서 불공을 드린다. 입춘정의, 입춘기도준비, 기도순서, 기도진행, 삼보통칭, 신중칭, 염송기도, 삼재풀이 민속식, 삼재풀이 기타식, 입춘추, 삼재부족등 수록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하는것은 소극적인 선행이고 방생을 하는 것은 적극적인 선행이다. 준비,식순,진행,방생문,여류방생 기도문, 조류방생기도문, 방생기도 소원지, 방생사진, 방생 이야기, 방생 공덕, 용궁 치성 방생등 수록.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시작을 태양의 부활로 여겼으며, 재액 초복을 위해 집안신에게 팔족을 올리는 세시풍속의 의례적 고사로서 불교신자들은 절에가서 불공을 드린다. 동지 정, 세시풍속, 불공 준비, 순서, 진행, 삼보통칭, 신중권공, 신중염송, 영단 제례, 영가 시식, 동지 고사, 팔족 예화등 수록.